



OECD, EU 청년실업 대책 촉구

정인영 연구원

■ OECD는 13일(현지시각) 파리 회동에서 EU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경고하며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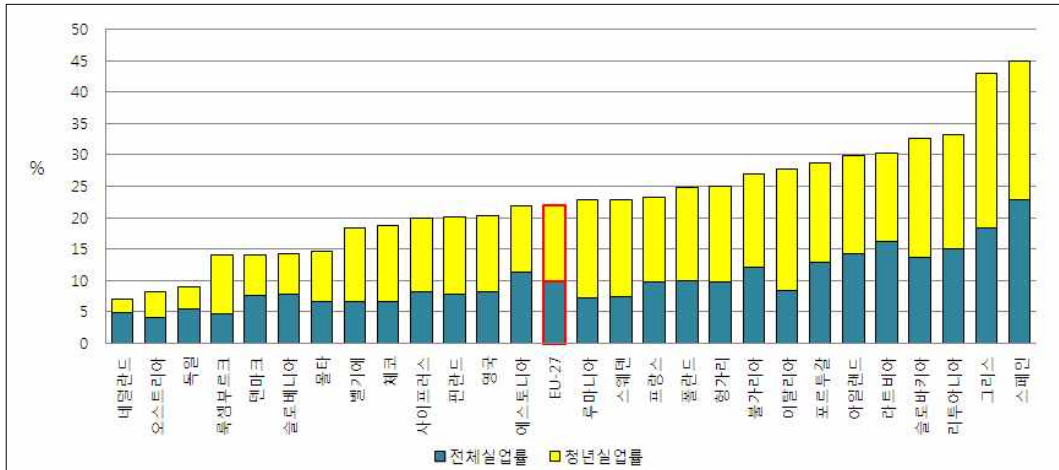
- 지난 몇 십 년간 높은 실업률은 유럽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나, 최근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역내 고용이 악화된 결과, 노동비용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꺼림으로써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.
- EU위원회 자료에 따르면, 2011년 10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(15~24세)은 평균 22%, 전체실업률은 평균 9.8%를 기록함.
- 또한 청년실업률은 EU 27개 회원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, 2011년 2/4분기 말 기준 스페인은 가장 높은 45%, 네덜란드는 가장 낮은 7%를 나타냄.

〈그림 1〉 EU 청년실업률 추이(2000~2011.10)



자료: EUROSTAT.

〈그림 2〉 EU 국가별 전체실업률 및 청년실업률



주: 1) 전체실업률: 2011.10 기준, (단, 덴마크: 2011. 09, 영국, 그리스: 2011. 08, 에스토니아, 리투아니아: 2011.3/4분기, 라트비아: 2011.2/4분기 기준).

2) 청년실업률: 2011.2/4분기 기준, (단, 전체 평균은 2011.10 기준).

자료: EUROSTAT.

■ Stefano Scarpetta OECD 고용부국장은 청년실업 해소는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
- 최근의 청년실업은 비숙련, 저학력 계층뿐만 아니라 고학력 계층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국가의 인력 및 교육투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.
- 정부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을 넘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돕고, 필요할 경우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함.

(Reuters 등, 12/13)